

새로운 문화재로 지정된

고양 상운사 석불좌상과 북한승도절목

2019년 8월 23일, 고양시의 문화유산 2점이 경기도 지정문화재로 지정·고시됐다. 문화재로 지정된 고양 상운사 석불좌상(유형문화재 제354호), 북한승도절목(유형문화재 제357호), 그리고 주변의 아름다운 북한산 단풍길을 소개한다.

글/사진 정동일(고양소식 편집위원)



고양 상운사 석불좌상

고양 상운사 석불좌상

북한산 영취봉 아래의 전통사찰인 상운사에 있는 석조 불상이다. 상운사는 신라 시대 원효대사가 창건하고 승려 회수가 133칸으로 중창했다고 전해진다. 1745년 편찬된 북한산성의 지리지인 '북한지'에 의하면 상운사는 북한산성 축성 이후 산성의 수비와 관리를 위해 창건했다고 한다. 3층 석탑, 대웅전, 목조불상 등이 현존하고 있어 전통사찰의 면모가 지금까지 잘 남아 있다.

문화재로 새롭게 지정된 석불좌상은 전체 높이가 109cm이며 연화좌대를 갖추고 있다. 불상의 하체 바닥에 홍치 10년(서기 1497년)에 만들어진 것이 기록돼있는 점, 불상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의 기록이 묵서명으로 남아 있는 점, 조선전기에 만들어진 불상의 희귀성, 불교조각 학술연구의 중요성 등이 인정돼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참고로 석불좌상을 관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운사 종무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66
제작시기와 제작 참여자들의 기록이 남아있고, 조선전기에 만들어진 불상의 희귀성, 불교조각 학술연구의 중요성 등이 인정돼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99

북한산성 안에 있는 승도절목

북한산성 대서문을 지나 중성문을 경유하면 용학사 부근에 산영루가 있다. 승도절목은 산영루 앞 10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데 바위를 깎아 내고 암각문을 새겨 북한승도절목이라 하였다. 가로 227cm, 세로 109cm의 규모로 21행 총 325자를 기록했다. 을묘(乙卯)란 기록을 통해 조선 철종 때인 1855년에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승도절목의 내용은 북한산성을 관리·운영하는 책임자, 즉 도총첩(都摠攝)을 임명할 때 반드시 북한산성 내의 사찰에서 임명할 것 등을 표기한 것이다. 이 문화재는 북한산성 승영사찰의 운영체제를 증명하는 역사성, 승군운영이라는 불교사적 가치, 조선 후기 군사제도를 알 수 있는 학술사적 가치가 인정돼 문화재로 지정됐다.

Tip. 10월 초 단풍이 절정인 북한산길과 문화유산



고양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풍나무 숲길은 북한산에 있다. 해발 800m가 넘는 준봉들이 줄지어 서 있고 인수봉과 숨은벽 일대는 아름다운 비경을 보여준다. 북한산에는 큰 봉우리 30여 개가 있는데 원효봉과 의상봉, 문수봉과 시단봉, 백운대와 영취봉을 도는 코스는 10km가 넘는다.

각 봉우리와 골짜기를 연결하는 많은 길도 있다. 산의 암봉들은 아름다우며 숲길은 걷기 좋다. 특히 10월 초 부왕사 계곡, 태고사 계곡, 대동문과 시단봉, 노적사 부근에는 아름답고 화려한 단풍나무 길이 만들어진다. 북한산 숲길과 함께 새롭게 지정된 문화유산을 답사하는 가을 여행이 되길 바란다. 🍁



1

66
북한산성 승영사찰의 운영체제를 증명하는 역사성, 승군운영이라는 불교사적 가치, 조선 후기 군사제도를 알 수 있는 학술사적 가치가 있다
99

1 북한승도절목
2 북한산 단풍나무 숲길



2